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신학생, 예비목회자를 위한 토론 질문 20

누구든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이다. 신학교에서 성경과 신학, 설교와 목회를 배운다. 그러나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교과서만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만나게 된다.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가? 교회의 성장은 곧 건강함을 의미하는가? 헌금과 직분, 교회 재산과 목회자의 사례는 어떤 원칙으로 다루어야 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질문할 수 있는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읽으며 다음 질문을 함께 토론해 보자.

1.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권위를 주는가, 아니면 복음과 말씀에 충실할 때 권위가 생기는가?
성도에게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칠 때 그 권위의 한계도 함께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2.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과 목회자를 비판 없이 따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목회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라면 목회자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가, 분별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조차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성도에게 자신의 설교를 믿으라고 가르쳐야 할까, 성경에 비추어 확인하라고 가르쳐야 할까?

4.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구절을 많이 인용하면 성경적인 설교인가?
본문의 의미보다 설교자의 주장이나 교회의 필요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때는 없는가?

5.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가 더 새로운 율법을 만들지는 않는가?

예배 참석, 새벽기도, 헌금, 봉사, 전도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면 복음을 돕는 것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일까?

6. “믿음이 좋은 성도”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사람,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성도라고 부르기 쉽다. 예수님이라면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셨을까?

7.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가?

교회 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듣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인 목회인가, 아니면 복음의 가치와 충돌하는가?

8. 목회자는 교회 재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통제해야 하는가?

목회자가 재정을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재정 결정의 중심에 서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목회자와 재정위원회, 당회와 공동의회 사이의 건강한 책임 구조는 어떻게 할까?

9.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진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목회자가 경제적 불안 없이 사역하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사례비, 주택, 차량, 은퇴 준비 등이 지나치게 특권화되지 않으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10. 목회자의 가족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갖는가?

목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암묵적으로 사역과 모범을 요구하는 문화는 정당한가?
반대로 목회자 가족이 직분이나 영향력에서 특혜를 받는 것은 건강한가?

11. 교회의 직분은 명예인가, 책임인가?

장로·권사·집사라는 직분이 섬김의 자리보다 신앙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자리가 된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직분을 받지 못해 상처받는 문화는 왜 생기는가?

12. 교회의 성장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가?

교인 수와 예산, 건물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교회의 건강이 크기나 성장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목회의 성공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13. 목회자가 다른 교회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석 인원, 건물, 예산, 유튜브 조회수, 유명세가 목회의 성적표가 되면 목회자의 설교와 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나는 신학생 때부터 어떤 목회를 성공이라고 여길 것인지 기준을 세우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4. 교회에서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인가?

목회자와 의견이 다른 장로나 성도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쉽다.
그러나 그 반대 의견이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5. 자신의 사역과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목회자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큰 헌금을 하는 교인, 영향력 있는 장로, 교단 지도자나 후원자 앞에서 목회자가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지혜일까? 목회자의 경제적·제도적 의존성과 예언자적 책임 사이에는 어떤 긴장이 있는가?

16.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거나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가?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교회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17.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해야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옳은가?
반대로 한 번의 잘못으로 회복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복음적인가?
용서, 책임, 징계, 회복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18.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는가?

“목회자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따르자”는 방식과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 사이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영적 지도력과 공동체적 책임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19. 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학생 때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쇠퇴하거나 문을 닫게 될 때 부동산, 예금, 부채, 직원 급여와 퇴직금, 계약과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교회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신뢰받아야 한다면 말은 무슨 뜻인가?

20. 내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성도들은 나 때문에 더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불편해 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기분과 기대를 살피며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을 건강한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자유로워지는 교회인가?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목회자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와 다른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교회의 성장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성도들을 나에게 의존하게 할 것인가, 복음 안에서 성숙하게 할 것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무엇을 건강한 교회라고 믿고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 위한 질문을 담은 책이다. 최병철 저,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